

#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

-공간은유의 의미확장을 중심으로

소필균(전북대)

## <목 차>

- |                    |                     |
|--------------------|---------------------|
| 1. 서론              | 2.2. 순간미학의 정태적 인지구조 |
| 2. 본론              | 2.3. 우주화되는 순환적 인지지향 |
| 2.1.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호 | 3. 결론               |

## 1. 서론

정현종은 1964년 『현대문학』에 「화음」, 「주검에게」이 추천되어 등단한다. 그는 60년대 시대 인식에 대해 내면적인 맑음의 의식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의 작품은 내용면에서는 형이상학의 철학적 사유를 보이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있어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 언어의 선택과 기법적인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점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sup>1)</sup>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은 첫 시집 『사물의 꿈』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시를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정현종의 시적 특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시인의 초기시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어는 ‘죽음’과

1) 정현종의 시사적 의의는 오십 년대를 휩쓴 서정주를, 유치환·박두진·김수영의 한문투의 남성주의와 서구적 구문법에 의지한 개인주의에 의해 극복한 점이다 (김현, 「술 취한 거지의 시학」, 이광호 엮음, 『정현종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203면).

‘허무’ 그리고 ‘실존’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시기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제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연구<sup>2)</sup>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을 인지시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60년대 이후 모더니즘 시<sup>3)</sup>의 독특한 면모를 보인 시인의 상상력의 구조나 인지 체계를 인지시학적 틀로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논의 과정은 먼저 언어적 인지기호를 살펴보고, 개념은유와 이미지 도식을 바탕으로 인지 의미의 구조를 분석해 본다. 그 다음 단계로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을 투사해 확장된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인지시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작품 분석에 사용되는 몇 가지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시학은 인지어미론(cognitive semantics)을 바탕으로 하는 시 연구 방법이다. 인지과학과 인지언어학, 인지심리학 등의

2) 다음 표는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물방울(인지대상)	도취/취함(인지상황)	표현(인지의미)
권계영 (2002)	취하는 순간에 대한 은유	초월적 시간으로 도취	이미지 화합
구성호 (2008)	순간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사라지는 운명	순간의 극대화	회의적 진술
서진영 (2004)	무아지경의 상태	초월적 경지	존재지평의 확장
양병호 (2009)	인간 존재로 치환	현세적이고 즉발적 태도	환상의 허상 세계
이병훈 (1992)	권태로움과 유한성	비극적 상황	삶의 비극성 인식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에 표기한다.)

3) 6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은 ‘극대화’ 또는 ‘진보’의 논리에 의해 실존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물의 인식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 구조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그들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인식 방법’과 ‘시의 언어 구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서진영, 『정현종 초기시의 지평구조와 의미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제16집, 2004, 77~78면).

여러 학문의 부분들을 아우르는 방법론이다. 더 나아가서는 기호학의 넓은 범주로 포괄할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여러 학문적 이론과 융합해서 정밀하게 작품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시학이다. 이러한 인지시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연구 업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에 대한 전망이 기대가 된다.

이 글에서 중심으로 적용할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sup>4)</sup> 먼저, ‘카테고리(category)’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무리를 말한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되어야 할 작업은 어휘를 분석하여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이 같은 언어를 범주화(categorization)하는 일이다. 이런 범주화는 ‘가족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은유(metaphor)’는 ‘유사성(similarity) 관계에 있는 ‘근원영역(source domain)’을 이용해서 ‘목표영역(target domain)’을 사상(寫像, mapping) 하는 작업이다. 개념적 은유는 인지적 기능에 따라 ‘구조적(structural) 은유’, ‘존재론적(ontological) 은유’, ‘지향적(orientational) 은유’가 있다. 개념적 은유의 중요한 기능은 추론 및 의미확장의 도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확대된 은유는 게슈탈트(Gestalt)와 정합성(整合性, coherence)의 개념으로 수렴된다.

‘환유(metonymy)’는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contiguity)’ 관계에 있는 경우 매체가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인지 과정이다. 표현 양상은 확대 지칭 양상과 축소지칭 양상, 상호전이 양상이 있다.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은 지각의 상호 작용, 신체 경험, 대상의 조작 등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조이고, 대부분 처음에는 창발하지만 비유적으로 전개하여 확대가 가능하다. 이미지 도식은 공간과 시간에 의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미지 도식에는 도식의 성격에 따라 ‘척도(尺度, scale) 도식’과 ‘그릇(container) 도식’ 그리고 ‘길(paths) 도식’ 등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 도식은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질서를 부여하고 구조화한다.

---

4) 이 글의 이론적 기반은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Mark Johnson,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를 바탕으로 한다.

## 2. 본론

### 2. 1.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호

시적 기호는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단어나 구이다. 단어나 구는 이미 존재하는 일군의 단어를 지시할 때 시화된다. 구는 그 위에서 그 자체를 패턴화할 때 시화된다.<sup>5)</sup> 다시 말해 하나의 단어나 구는 그것이 재현적인 의미에서의 뜻이 아니라 기호학적 의미에서의 의미와 관련될 때 시적 기호가 된다.

텍스트는 각 표현들이 이루는 언어적 구성체라기보다는 통화자가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구성체다.<sup>6)</sup> 텍스트의 인지 언어기호는 인지 주체가 인지 대상을 인지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충분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밀한 이해는 인지시학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요건이다.

시적 텍스트에서 정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sup>7)</sup> 그러나 대부분의 인지시학적 분석에 있어서 언어적 인지기호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과정이 수행된다면 인지시학이 언어기호를 바탕으로 하는 좀 더 정치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작품의 미시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인지시학적인 관점에서 언어기호를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은 단연 16행의 161음절로 이루어진 시이다. 이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인지기호는 두 가지 면에서 분석한다. 먼저 중심어의 이원적 양상은 ‘물/빛’, ‘천사/악마’, ‘땅/공중’, ‘긍정/부정’의 양상으로 나누어 본다. 다음으로 통사적인 면에서 이원적 양상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 등에 나타난 특성으로 살펴본다.

5) 미카엘 리파페르, 유재천 역, 『시의 기호학』, 민음사, 1989, 45면.

6) 김태옥, 『담화 텍스트 언어시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216면.

7) 위의 책, 205면.

- (1) ① 물방울들은 마침내  
 ② 비껴오는 햇빛에 취해  
 ③ 공중에서 가장 좋은 색채를  
 ④ 빛나게 입고 있는가.
- (2) ⑤ 낮은 데로 떨어질 운명을 잊어버리기를  
 ⑥ 마치 우리가 마침내  
 ⑦ 가장 낮은 어둔 땅으로  
 ⑧ 떨어질 일을 잊어버리며 있듯이  
 ⑨ 자기의 색채에 취해 물방울들은
- (3) ⑩ 연애와 無謀에 취해  
 ⑪ 알코올에, 피의 속도에  
 ⑫ 어리석음과 시간에 취해 물방울들은  
 ⑬ 떠 있는 것인가.
- (4) ⑭ 악마의 정열 또는  
 ⑮ 천사의 정열 사이의  
 ⑯ 걸려 있는 다채로운 물방울들은.

「무지개나라의 물방울」<sup>8)</sup>

텍스트의 중심 언어적 인지기호는 ‘햇빛’과, ‘물방울’이다. 햇빛과 물방울의 관계는 이원론적인 역설의 관계이다. 물방울은 햇빛을 받아 빛을 받는다. 그러나 물방울은 햇빛을 받으면 존재가 소멸된다. 물은 햇빛 때문에 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언어적 인지기호는 ‘가족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으로 ‘카테고리(category)’를 분류해 보면, ‘긍정/상향’ 의미와 ‘부정/하향’ 의미로 범주화된다. 전자에 속하는 언어적 인지기호는 ‘물방울, 햇빛, 공중, 색채, 좋은, 빛나게, 천사, 정열, 다채로운’ 등이 있다. 후자에는 ‘낮은, 떨어질, 잊어버리기, 어둔, 땅, 無謀, 어리석음, 걸려, 악마’ 등이 있다. 우연하게도 긍정과 부정의 카

8) 정현중, 『시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99, 24면.

번호 매김은 작품의 인용을 위해 필자가 임의로 한다. 괄호 번호는 내용상 연구 분이고, 동그라미 번호는 행 표기이다.

테고리의 개수가 9개로 균형을 이룬 이원화를 보인다. 이렇게 대립의 의미로 이원화된 기호들은 텍스트 내에서 유기적인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적 유사성에 의한 ‘카테고리화(categorization)’에서 중심성(centrality)에 해당하는 언어적 인지기호는 ‘땅/공중’과 ‘천사/악마’를 들 수 있다. 언어적 인지기호의 의미 영역은 ‘지상/천상’과 ‘가깝다/멀다’의 의미 확산을 이루고 있다. ‘땅’과 ‘공중’은 인지 상황이 가시적인 공간 개념으로 은유화되고 있다. ‘천사’와 ‘악마’는 인지 심리에 의해 멀고 가까움으로 인지된다. (4)에 표기된 ‘악마’와 ‘천사’의 언어기호는 의미상으로 극단의 형상이다. 텍스트의 끝 부분에 드러난 그 의미적 공간은 한없이 넓다.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의 울림이 그만큼 넓게 인지된다. 이렇듯 이원화된 언어기호들은 역동적인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작품의 언어적 인지기호를 통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형성하는 구조적 장치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 작품에서 온점을 찍는 부분이 세 부분이다. 그 세 부분에서의 완전한 서술부는 (1)④ “빛나게 입고 있는가”와 (3)⑬ “떠 있는 것인가” 두 행에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의미상 온점을 찍은 부분은 (1)④와 (3)⑬의 종결어미와 (4)⑯의 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상 연 구분은 (2)⑨ ‘물방울들’의 뒤에도 온점이 찍혀야 한다. 이와 같은 언어기호 배치에 의해 의미 단락이 (1)에서 (4)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에서는 언어적 인지기호가 텍스트의 표층 공간에 드러난 양상을 언어기호 분포도로 그려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는 <텍스트는 은유공간이다>의 개념은유를 기저로 한다. 텍스트는 그 자체가 은유이고 공간이며, 나아가 은유 공간이 된다는 설정이다.

---

9) 개념은유는 < > 표기로 한다. 인지시학 관련 기본이론서에 있는 개념은유는 참고한 문헌을 표기한다. 그 밖의 개념은유는 일반적으로 서술한다.

- (1) ① 물방울들은 …
- ② …… ……
- ③ …… ……
- ④ …… ……
- (2) ⑤ …… ……
- ⑥ …… ……
- ⑦ …… ……
- ⑧ …… ……
- ⑨ …… …… 물방울들은
- (3) ⑩ …… ……
- ⑪ …… ……
- ⑫ …… …… 물방울들은
- ⑬ …… ……
- (4) ⑭ …… ……
- ⑮ …… ……
- ⑯ …… …… 물방울들은

[그림 1]

텍스트의 주어 ‘물방울들은’의 분포는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물방울들은’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끝에 배치되어 있다. 첫 어절에 표현된 의미상 주어 ‘물방울들은’ 물방울에 대한 인지적 감각을 일으키며, 읽는 이에게 주목하게 한다. (1)① 주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번 나타나는 ‘물방울들은’이 각 시행의 끝에 배치되어 있어 도치적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이와 같이 주어 ‘물방울들은’이 텍스트의 첫 어절과 끝 어절에 배치되어 수미상응의 관계를 이루어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형상은 형태 구조의 균형감을 독특하게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텍스트 자체가 물방울과 같은 형상으로 인지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는 그릇이다> 은유와 <텍스트는 물방울이다> 은유가 발견된다. 앞의 두 은유는 <물방울은 그릇이다> 은유를 유추되게 한다. 요컨대 텍스트가 물방울이고, 물방울이 그릇으로 인지되는 양상이다. 하나의 시 작품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이 하나의 ‘물방울’에 담긴 형상이다.

이렇듯 텍스트 전면에 분포되어 있는 ‘물방울들은’ 언어기호가 만들어내는

형상이 물방울 형태의 원형과 닮아 있다. 그 형상은 ‘물방울’의 동그라미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기호가 확대된 모습이다. 이러한 형상은 천상적 자연을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렇듯 둥근 것은 형태 중에 제일 완전한 형태이며 생명의 모습이라고 한다.<sup>10)</sup> ‘물방울’은 이러한 시인의 세계관을 잘 나타내는 언어기호이다.

- (1) ① ..... 마침내
- ② ..... ..
- ③ ..... ..
- ④ ..... ..
- (2) ⑤ ..... ..
- ⑥ ..... 마침내
- ⑦ ..... ..
- ⑧ ..... ..
- ⑨ ..... ..
- (3) ⑩ ..... ..
- ⑪ ..... ..
- ⑫ ..... ..
- ⑬ ..... ..
- (4) ⑭ ..... ..
- ⑮ ..... ..
- ⑯ ..... ..

[그림 2]

작품에 표기된 부사어 ‘마침내’는 (1)-①과 (2)-⑥의 이원적 양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사어 ‘마침내’의 주체는 ‘물방울들’과 ‘우리’이다. ‘마침내’의 의미는 목표영역인 ‘우리’와 근원영역 ‘물방울들’ 모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암시이다. 앞 뒤 문맥에서 이원화된 ‘마침내’는 각각 다른 가족적 유사성의 어휘를 유추해내고 있다. 이것은 의미의 동일화(identification)의 관점에서 의미론적 계열체를 형성한다. 언어적 인지기호 ‘마침내’는 두 번 등장해서 의미상 주어 ‘물방울들’과 ‘우리’의 인지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1)-①의 ‘마침내’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의미가 함축

10) 정현중, 앞의 책, 373면.

되어 있다. 가족적 유사성의 어휘로는 ‘드디어’가 유추된다. 그 햇빛은 바로 오지 않고 비껴오고 있어 기다림의 심리를 구체화한다. 이렇듯 기다림의 끝에 ‘물방울’은 ‘마침내/드디어’ 좋은 색채를 입을 수 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색채를” 입을 수 있어서 인지대상 물방울은 마침내 환희에 차 있다.

(2)⑥의 ‘마침내’는 (1)①과 대조적인 인지 의미를 나타낸다. ‘물방울/인간’은 마침내 ‘소멸/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운명을 비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족적 유사성의 어휘로는 ‘끝내는’으로 유추된다. ‘물방울/인간’은 ‘마침내/끝내는’ 떨어질 운명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운명을 말한다. 그곳은 어둔 곳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인지 대상의 한없는 슬픔에 대한 안타까움의 인지 심리가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다.

- (1) ① .....
  - ② .... 햇빛에 ..
  - ③ ..... ..
  - ④ ... ..
- (2) ⑤ .....
  - ⑥ ..... ..
  - ⑦ ..... ..
  - ⑧ ..... ..
  - ⑨ ... 색채에 .. ..
- (3) ⑩ 연애와 無謀에 ..
  - ⑪ 알코올에 피의 속도에
  - ⑫ 어리석음과 시간에 ..
  - ⑬ . . . . .
- (4) ⑭ .....
  - ⑮ ..... ..
  - ⑯ ..... ..

[그림 3]

‘물방울들’이 무엇에 취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연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취하게 하는 요소는 모두 8개의 언어기호로 분포되어 있다. 그 형태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 ‘물방울들’을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같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이원적이다. 이원적 양상은 천상/지상의 이미지로, 천상의 카테고리는 ‘햇빛’과 ‘색채’이며 지상의 카테고리는 ‘연애’, ‘無謀’, ‘알코올’, ‘괴의 속도’, ‘어리석음’, ‘시간’이다.

두 카테고리는 다시 두 가지 유사 의미로 확장된다. 천상적 의미는 ‘상승/이상’의 의미를 함유하고, 지상적 의미는 ‘하강/현실’의 의미를 함유한다. (1)-(2)와 (2)-(9)는 표층적 언어기호 분포도에서도 위쪽에 위치해 있는 양상으로, 인지 주체에게 상승과 이상의 인지 모델을 보이고 있다. 그와 상대적으로 (3)-(10), (3)-(11), (3)-(12)는 지상과 현실의 인지 모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원화 연쇄 현상이 한없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적 지향의 이원적 양상은 텍스트의 의미화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인지 상황이 때문일 것이다. 그 언어적 인지기호가 텍스트 공간에 상승과 하강의 양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 (1) ① .....  
     ② .... .. 취해  
     ③ .....  
     ④ .....  
 (2) ⑤ .....  
     ⑥ .....  
     ⑦ .....  
     ⑧ .....  
     ⑨ ..... 취해 .....  
 (3) ⑩ ..... 취해  
     ⑪ .....  
     ⑫ ..... 취해  
     ⑬ .....  
 (4)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㉓ .....  
     ㉔ .....  
     ㉕ .....  
     ㉖ .....  
     ㉗ .....  
     ㉘ .....  
     ㉙ .....  
     ㉚ .....  
     ㉛ .....  
     ㉜ .....  
     ㉝ .....  
     ㉞ .....  
     ㉟ .....  
     ㊱ .....  
     ㊲ .....  
     ㊳ .....  
     ㊴ .....  
     ㊵ .....  
     ㊶ .....  
     ㊷ .....  
     ㊸ .....  
     ㊹ .....  
     ㊺ .....  
     ㊻ .....  
     ㊼ .....  
     ㊽ .....  
     ㊾ .....  
     ㊿ .....

[그림 4]

인지기호 ‘물방울들은’의 행동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취해’이다. 언어기호 ‘취해’는 모두 4번 표기되어 있다. 주어와 서술어는 모두 정확하게 호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하게도 표기 횟수가 대응이 된다. 표기상 언어기호가 대응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물방울들은’ 주어와 ‘취해’의 서술어가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호는 형태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그림 1] ‘물방울들은’의 분포 형상과 거리상 떨어져 있지만, 호응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앞의 [그림 3]과의 의미 관계는 취하는 원인 요소가 이원화되면서 서술어가 지향하는 인지 의미의 양상도 이원화된다. (1)-(2)와 (2)-(9)에서 파악되는 인지 의미는 ‘환희’와 ‘도취’이다. 그와 상대적으로 (3)-(10), (3)-(11), (3)-(12)에서 파악되는 인지 의미는 ‘허무’이다. 이렇듯 ‘취해’의 의미는 이원적으로 나타난다.

- (1) ① …… …
- ② …… ……
- ③ …… ……
- ④ 빛나게 입고 있는가
- (2) ⑤ …… ……
- ⑥ …… ……
- ⑦ …… ……
- ⑧ …… ……
- ⑨ …… ……
- (3) ⑩ …… ……
- ⑪ …… ……
- ⑫ …… ……
- ⑬ 때 있는 것인가
- (4) ⑭ …… ……
- ⑮ …… ……
- ⑯ …… ……

[그림 5]

텍스트에 나타난 완전한 종결어미는 두 곳에 표기되어 있다. 두 부분의 서술부 언어기호는 (1)④ “빛나게 입고 있는가”와 (3)⑬ “떠 있는 것인가”이다. 종결어미 ‘-는가’와 ‘-인가’는 감탄을 나타낸다. 인지 주체는 인지 대상 ‘물방울들’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구어적 성격의 담화에 의해 인지하고 있다. 두 부분에 표기된 서술부의 의미는 ‘빛나게 입고 떠 있는가’로 통합 축약되어 인지된다. 이렇듯 서술부의 통사적 인지기호는 시 전체의 의미를 감탄형으로 함축해서 인지하게 한다. 그러나 심층적 의미는 ‘경탄/환희’와 ‘안타까움/허무’로 이원적 양상을 보인다.

(1)④는 자신에게 맞는 색채를 입고 있는 물방울이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표현하고 있다. 인지 주체는 천상의 이상적인 요소에 의해 취해 있는 물방울에 대해 경탄하는 인지 심리를 나타낸다. 그러나 (3)⑬은 (1)④와 언어적 인지기호의 의미적 거리가 상당히 멀다. 여기서는 지상의 세속적 요소에 의해 취함을 경험한 물방울에 대한 허무를 나타내는 안타까움의 인지 심리이다. 이원화되어 나타난 서술부는 텍스트의 형태적 구조에서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언어기호 분포도는 일차적으로 텍스트 공간에 펼쳐진 은유로 인지된다. 공간 은유의 언어기호는 순차적인 의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의미 구조의 진행은 [그림 1]→[그림 2]→[그림 3]→[그림 4]→[그림 5]의 양상이다. 그 언어기호의 의미는 [물방울들은(4회 반복)]→[마침내(2회 반복)]→[햇빛에, 색채에, 연애와 無謀에, 알코올에, 피의 속도에, 어리석음과 시간에]→[취해(4회 반복)]→[빛나게 입고 있는가, 떠 있는 것인가]의 구조이다.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기호의 분포도는 순차적으로 합해져 유기적인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는 인지 주체가 인지 대상인 무지개나라에 있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즉물적으로 표현한 서술 형식이다. 그러한 모습은 인지 주체에게 순간적으로 포착되어 언어적 인지기호로 나열된다. 언어적 인지기호는 의미적 공간이 멀거나 양극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언어적 인지기호의 분포는

텍스트 표층의 공간에서 상승과 하강의 시각적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텍스트의 역동적인 상상력을 넓혀주며, 나아가 의미 구조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 2. 2. 순간미학의 정태적 인지구조

이 장에서는 텍스트의 인지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인지시학의 방법을 통해 두 단계의 과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은 먼저, 개념은유를 활용해서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살핀 후, 인지구조의 양상을 이미지 도식으로 그려 보고자 한다. 이미지 도식은 중층 구조를 이루면서 의미를 생성하며, 의미 구조를 시각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텍스트는 의미 단락<sup>11)</sup>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정현중은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에서 맑은 인식으로 순간의 미학을 그려내고 있다. 중심 명제는 공중에 떠 있는 무지개 속의 물방울에 대한 인식이다. 텍스트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맑은 상상력을 향하고 있다. ‘무지개나라’에 대한 의미 규정은 시 이해에 근간이 된다. ‘무지개나라’는 〈무지개는 단체다〉의 개념은유를 창출하는 ‘집합적 존재로서의 무지개’를 가리키는 합성어이다. 이런 ‘무지개나라’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물방울’이 된다.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은 어디에든 있지만, 다채롭게 빛나는 ‘물방울’은 오직 무지개나라에만 있다. 인지 주체는 가장 빛나는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물방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은 인과적인 해명을 거부하는 상상력의 아름다운 채색의 한 순간이다.<sup>12)</sup> 시적 이미지는 인과관계와는 반대 방향에서, 울림 속에서 존재의 소리를 가질 것이다. 한 이미지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

11) 의미 단락은 앞에 제시된 텍스트 전문에 표기한 숫자 매김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나눈 기준은 실질적인 의미 주어 ‘물방울들’을 중심으로 한다.

12) 이경수, 「바람의 현상학」, 『작가세계』, 제8권 제2호(통권 제6호), 1990, 8, 74면.

그것의 울림을 체험해야 할 것이다.<sup>13)</sup> 여기서는 인지시학적 방법을 통해서 텍스트에 나타난 철학적 사유의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sup>14)</sup> 텍스트의 인지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면에서 인지 정보를 정리해 본다.

구분	인지 대상	인지 공간	인지 시간	인지 감각	인지 상황	인지 행위	인지 심리	인지 의미
(1)	물방울	무지개나라	현재	시각	햇빛에 취해	빛나게 입고 있음	경탄	천상의 이상적 취함과 환희
(2)	물방울	무지개나라	현재	시각	색체에 취해	운명 잇고 있음	안타까움	운명의 망각과 자기도취
(3)	물방울	무지개나라	현재	시각	연애 無謀 알코올 피의 속도 어리석음 시간에 취해	떠 있음	안타까움	지상의 세속적 경험에 취함과 허무
(4)	물방울	무지개나라	현재	시각	악마와 천사 사이에	걸려 있음	수용	대립적 세계 속의 존재 인식

[그림 6]

위의 표에서 보여지 듯, 텍스트의 기본적인 인지 정보는 단순하다. 인지 대상, 인지 공간, 인지 시간, 인지 감각이 텍스트 전면에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다. 인지 주체는 현재, 햇볕을 등지고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무지개나라에 있는 물방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설정이다. 이러한 단순한 인지 정보는 순간미학을 표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13)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83면.

14) 시적 이미지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현상학에 이르러야 한다. 상상력의 현상학이란 시적 이미지가 인간의 마음, 영혼, 존재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의식에 떠오를 때, 이미지의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위의 책, 84면).

- (1) ① 물방울들은 마침내
- ② 비껴오는 햇빛에 취해
- ③ 공중에서 가장 좋은 색채를
- ④ 빛나게 입고 있는가.

(1)에서 인지 의미는 천상의 이상적 취함에 대한 환희이다. (1)의 정보 단위에서 인지 주체가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인지 주체의 시선은 위로 향하고 있다. (1)에서 중심이 되는 은유는 〈삶은 그릇(LIFE IS A CONTAINER)〉<sup>15)</sup>의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가 기반하고 있다. ‘무지개나라’가 그릇으로, ‘물방울’은 삶으로 은유된다. 제목 이외의 본문에는 ‘무지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공중에서 가장 좋은 색채’라는 환유로 ‘무지개’를 표현하고 있다. 무지개의 일곱 가지 빛깔은 인간 의식의 단계를 상징하고, 완전무결한 아름다움을 상징한다.<sup>16)</sup> 여기에서 중심 단어 ‘햇빛’, ‘색채’, ‘빛’은 ‘가족적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한 의미론적 계열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물방울이 햇빛에 취해 빛나는 인지 상황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 밖의 은유로는 〈생명은 불꽃이다〉와 〈생명은 액체이다〉<sup>17)</sup>의 존재론적 은유가 사용된다. 〈생명은 불꽃이다〉 은유는 〈생명은 빛이다〉<sup>18)</sup>와 〈생명은 열이다〉의 조합에 의한 복합적 은유이다. 물방울은 태양의 열을 받아 빛을 내고 있다. 이러한 순간에 물방울은 불꽃과 같은 생명감에 충만하게 된다. 〈생명은 액체이다〉 은유는 〈사람은 물방울이다〉 은유를 추론하게 한다. 신체는 그릇에, 생명은 그릇 속의 액체에 은유된다. 여기에서 액체는 생명에, 물방울은 사람에 사상된다. 따라서 생명력의 정도는 몸속의 액체의 양에

15) George Lakoff & Mark Johnson,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1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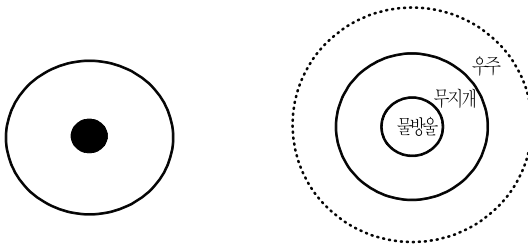
16)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195면.

17) George Lakoff & Mark Turner, 이기우·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118~119면.

18) 위의 책, 31~32면.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복합적 은유 구조에서 사상하는 일차적인 목표영역은 살아 있는 인간 속의 힘이나 활력을 말한다.

②의 “비껴오는 햇빛에 취해”에서 ‘비껴오는’은 무지개 원리를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빛의 굴절에 따라 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세계에 대한 비유로는,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환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에서 “공중에서 가장 좋은 색채를”에는 인지 주체의 감각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는 <좋은은 위이다(GOOD IS UP)><sup>19)</sup>의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가 사용된다. 빛나는 것은 우리의 인지 감각을 자극하며, 바라보는 인지 주체에게 선망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 인지 주체는 좋은 색채로 빛나고 있는 물방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탄하게 된다. ④의 종결어미 “빛나게 입고 있는가”는 인지 대상을 의인화하는 신체화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인간의 삶에 비추어 보면, 입을 수 있는 것은 일차적인 의미의 옷에서부터 확대된 의미의 추상적인 관념들까지 있다. 이러한 표현은 환유의 확대지칭 양상이다.



<원형적 그릇 도식> <원형적 그릇 도식='물방울'의 그릇 도식>

[그림 7]

그릇 도식(container schema)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나 사건 개념을 구체화

19) George Lakoff & Mark Johnson, 앞의 책, 44면.

시키고 경계를 부과하여 영역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경계 부과는 경계 안과 밖을 구분하며, 경계를 부과한 대상을 그릇으로 인지한다. 그릇 도식은 범위 개념에 투사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경계 개념에 주목하게 된다.<sup>20)</sup>

[그림 기은 ‘물방울’이 ‘무지개’에 담긴 형상을 그려낸 그릇 도식이다. ‘물방울’ 그릇 도식이 원형적 그릇 도식에 중첩된 이미지를 투사해 도출된다. 도식은 의미 구조에서 중심어의 포함 관계를 드러낸다. 나아가 공간은유는 확장되어 점선의 우주를 추측하게 한다. 인지 주체에게 (1)의 양상은 시선이 높은 곳, 무지개 그릇에 담긴 물방울의 형상으로 인지된다.

- (2) ⑤ 낮은 데로 떨어질 운명을 잊어버리기를
- ⑥ 마치 우리가 마침내
- ⑦ 가장 낮은 어둔 땅으로
- ⑧ 떨어질 일을 잊어버리며 있듯이
- ⑨ 자기의 색채에 취해 물방울들은

(2)에서는 드디어 인지 주체가 텍스트의 표층에 등장한다. 인지 주체는 ‘우리’ 중의 하나인 함축적 화자(implied speaker)이다. (2)의 인지 의미는 운명을 망각하고 자기도취에 빠진 양상이다. ⑤의 “낮은 데로 떨어질 운명을 잊어버리기를”에서 보듯, 물방울들은 낮은 곳으로 떨어질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그 운명은 ‘우리’의 운명을 환유한다. 인지 대상과 인지 주체의 운명은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다. 인지 주체는 그와 같은 운명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2)는 <죽음은 어둠이다><sup>21)</sup>와 <인생의 사이클은 빛과 열의 결여이다>의 복합적인 은유를 기반으로 한다.<sup>22)</sup> 이러한 은유는 인생 사이클의 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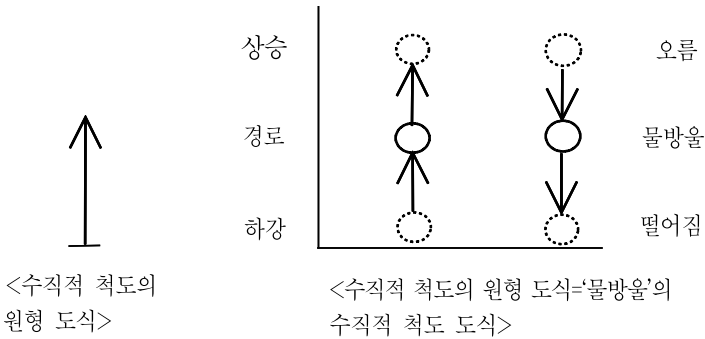
20) 임혜원,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2004, 119면.

21) George Lakoff & Mark Turner, 앞의 책, 120면.

22) 위의 책, 119면.

모델에 사상(寫像, mapping)한다. 이것은 도식적으로 시작과 끝이 같고, 찾다가 기우는 인생 사이클을 마련해 준다.<sup>23)</sup> 이러한 복합적인 은유는 유추적으로 구조화되는 인생의 구조에 사상된다.

여기에서 인지 주체의 인지 심리는 ‘안타까움’으로, 그것은 ‘물방울들’에 대한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환유적으로 인지된다. 시인은 물방울을 통해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색채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자기의 색채”는 수많은 환유가 중첩되어 있다. 색깔은 고립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하며, 이것이 힘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한다.<sup>24)</sup> 색은 고유의 색이 있어 존재를 인정받듯이 ‘물방울들’은 객체 대 객체로서 자기의 색채가 있어 존재한다.



[그림 8]

척도 도식(scale schema)은 대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식으로, 수직/수평적인 척도 도식으로 나눈다. 대상과 개념의 공간적 지향성은 관련을 맺고 있는 둘 이상의 개념화 대상에 대한 관계를 측정해야 부과된다. 위아래에 기초한 도식은 수직적 공간 개념에 의한 은유적 개념화 과정 또는

23) 이와 같은 이미지 도식은 2.3.장에서 그려보기로 한다.

24) Mark Johnson, 앞의 책, 166~167면.

세부 유형의 은유들 간의 상호 관계를 좀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sup>25)</sup>

[그림 8은 (2)의 내용을 수직적 척도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선의 동그라미는 텍스트 표층적 의미를 나타내고, 점선의 동그라미는 공간은유의 의미확장에 의해 투사되어 인지된다. ⑧의 “떨어질 일을 잊어버리며 있듯이”에서 인지 주체는 물방울이 곧 떨어질 것을 인지한다. 떨어짐은 아래로의 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인지 주체는 떨어짐의 반대 상황인 오름을 동시에 인지한다. 인지 주체는 물방울이 결국 하강/상승의 순환을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 과정은 의미확장으로 이어져 텍스트의 의미 층위를 입체적으로 인지하게 한다.

(3) ⑩ 연애와 無謀에 취해

⑪ 알코올에, 피의 속도에

⑫ 어리석음과 시간에 취해 물방울들은

⑬ 떠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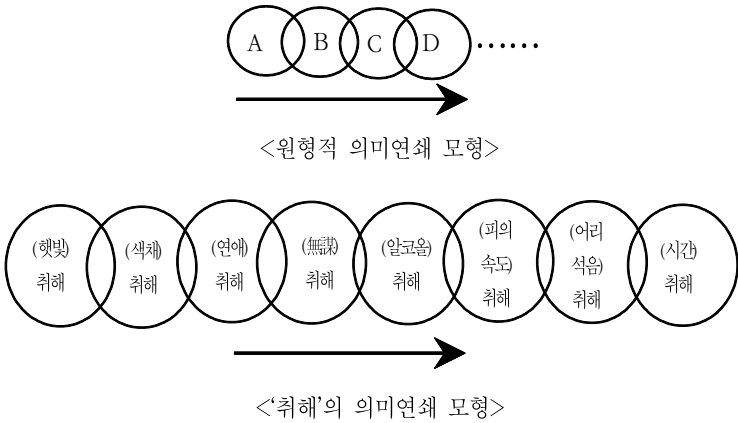
(3)의 인지 의미는 지상의 세속적 경험에 취해서 오는 허무를 표현하고 있으며, 인지 주체의 심리가 안타깝게 인지된다. 여기서는 <인간은 물방울 이다/물방울은 인간이다>와 <인생은 취함이다> 은유가 기반하고 있다. 앞의 은유 개념은 텍스트의 전면에 걸쳐 사상한다. ‘물방울/인간은 ‘인간/물방울’에 사상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은유 구조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리/인간’들에 대해서 은유한다. 뒤의 은유에서는 <인생은 술이다> 은유가 환기된다. 술은 감각과 정신을 자극하기도 하고 마비시키기도 한다. 사람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때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경지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한 인간의 삶은 취함의 공간이다.

이렇듯 ‘취함’은 無我地境의 황홀경과 망각을 유발한다. 취하는 원인은

---

25) 임혜원, 앞의 책, 173~177면.

다양한 인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3)에서는 온통 취하는 요소를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물방울들은 그러한 인지 상황/원인에 취해 떠 있는 것이다. 詩作의 동기는 시인의 경험과 세계관에서 비롯된 의미의 사상이라 해석된다.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는 도취 요소들은 세상의 모든 사물/현상을 사상하는 확대지칭 환유적 양상이다. 이것은 연쇄에 의해 미끄러지듯 나열되어 있다.



[그림 9]

‘의미연쇄(meaning chain)’는 ‘가족담음’의 원리로서, 다의어는 원형을 중심으로 인접항 간의 연쇄에 의해 의미가 확장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의미연쇄에는 취함의 인접성이나 유사성의 인지기제가 작용하고 있다.<sup>26)</sup> (3)에서 취함의 여덟 가지 사례(A와 B는 (1)과 (2)에 해당됨)는 연쇄에 의해서 의미가 확장된다. 취하는 양상은 환유를 통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 한편, 취하는 인지 상황의 나열은 의미확장으로 가는 길 도식 위에 있다.

26)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9, 101면.

- A. 햇빛에 취해
  - B. 색채에 취해
  - C. 연애에 취해
  - D. 無謀에 취해
  - E. 알코올에 취해
  - F. 피의 속도에 취해
  - G. 어리석음에 취해
  - H. 시간에 취해
- (‘취해’는 의미상 서술어로 필자가 임의로 표현함)

신체화는 의미 작용, 추상적 사고 과정이 신체적 경험에서 출발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신체어는 의미확장의 중심이다. 신체어의 의미확장은 주로 개념적 환유와 은유에 의해 수행된다. 신체어는 다의적 의미확장으로 파악해야 한다. 원형 의미와 다양한 확장 의미의 과정에는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sup>27)</sup>

정현종의 독특한 문장들, 흐르듯 이어지는 말들의 더미는 환유적 수사학을 시적 원리로 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법적 차원의 독특함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조용하는 세계 인식을 함의하는 것이다.<sup>28)</sup> (3)에서는 이 작품의 중요 명제인 ‘취함’의 요소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그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물방울이 취하는 요소는 곧 우리 인간이 취하는 요소를 환유한다. 그 환유는 상호전이의 양상으로 ‘취함’의 매체와 목표를 사상한다.

(3)의 요소들은 물방울로 사상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직설적인 어조로 표현한다. A. 햇빛과 B. 색채는 (1)과 (2)에서 보았듯이, 물방울을 빛나게 하고 존재 의미를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27) 위의 책, 103~104면.

28) 송기환, 「정현종 초기시의 환유적 성격과 그 의미 구조 연구」, 『한국현대문학 연구』, 한국현대문학회, 제16집, 2004, 12, 151면.

C. '연애'는 일차적으로 인간들이 戀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아가 자연적/우주적 교감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D. '無謀'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헤아리지 않고 몰입하는 현상이다. C. '연애'와 D. '無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인 부분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삶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지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취한 상태를 은유한다.

E. '알코올'에 취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물질/약물이 투입되어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그러한 영향은 화학 작용을 일으켜 정신을 몽롱하게 하거나 마비시킨다. 인간들은 그러한 몽롱과 마비를 관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酒道문화로 인지하기도 한다. '알코올' 시어 뒤에 반점은 '알코올'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거나 환기한다. '알코올'은 무리지어 표현한 취함의 요소 중 가장 원형적 의미이다. 시인은 '알코올'이 '취함'에 대한 의미연쇄의 원형(prototype)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F. '피의 속도'에 취하는 원인에는 두 가지로 유추된다. 그것은 내부의 정신적인 에너지나 외부의 자극 때문이기도 하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의 원인은 알코올/환각제와 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 이념/감성에 의한 정신적인 자극 때문일 수도 있다. F.는 혈기가 강해지는 현상을 유발하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지 상황일 수도 있다.

한편, 앞의 E. '알코올'과 F. '피의 속도'는 원인과 결과의 주체가 피비우스피 선상에 있다고 인지된다. 알코올 영향으로 피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피의 속도 때문에 알코올을 찾을 수도 있다. F. '피의 속도'는 詩作이 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 구도에서 다양한 의미 양상으로 인지된다. 1960년대는 4·19 혁명의 좌절과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의해 우리 인간은 소외와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F. '피의 속도'는 그러한 시대적 고민을 환유하고 있다.

G. '어리석음'은 결과적으로 표출되는 인지 상황이거나 인지 심리이다.

그 원인에는 예견을 하거나, 예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예견을 하는 경우는 인지 주체의 주체적인 양상이고, 예견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지 주체의 피동적인 양상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인지 심리는 안타까움이다.

H. '시간'의 가족적 유사성의 어휘는 '세월'이다. 시간/세월에 취해 흘러 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한다. 인간은 시간/세월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 상황에서 취하듯 살아간다. 인간의 운명은 시간/세월 속에 취하듯 맡겨짐을 환유한다. 이러한 운명은 의미를 확장해 보면 자연/우주의 운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 체계는 <사람은 자연이다> 은유가 기저해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인간이 시간에 취해 있는 상태는 우주의 원리로 인지된다. H. '시간'은 마지막으로 나열된 '취함'의 요소답게 앞의 연쇄된 환유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

- (4) ⑭ 악마의 정열 또는
- ⑮ 천사의 정열 사이의
- ⑯ 걸려 있는 다채로운 물방울들은.

(4)의 인지 의미는 대립적 세계 속의 존재 인식이다. 인지 주체는 그러한 양상을 수용하는 심리이다. 여기서 <시야는 그릇(VISUAL FIELDS ARE CONTAINERS)><sup>29)</sup>의 존재론적 은유가 사용된다. 인지 주체의 시야는 하나의 그릇으로 개념화된다. '물방울들은 '그릇 속의 액체'로 파악되지만 그릇에서 흐르는 물리적인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지 대상 '물방울들은 "악마의 정열 또는/천사의 정열 사이"에 딱 걸려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서 '정열'은 '취함'과 가족적 유사성의 카테고리이다. <취함은 정열이다> 은유가 창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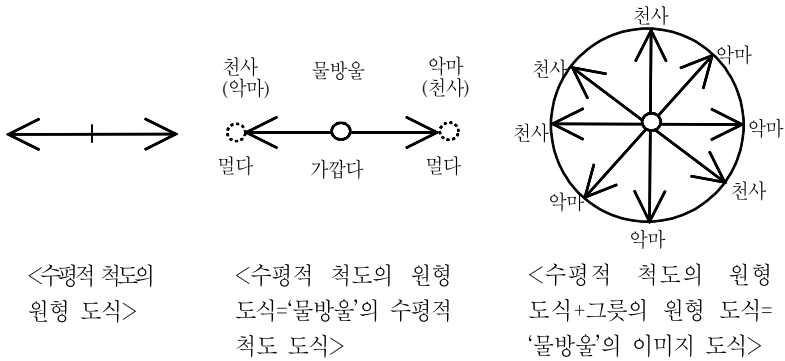
'물방울들이 걸려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유추된다. ④-⑭ 접속어 '또는'의 의미 구조는 '천사와 천사'나 '악마와 악마' 사이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지

---

29) George Lakoff & Mark Johnson, 앞의 책, 68면.

주체는 일반적으로 ‘악마와 천사’ 사이로 인지한다. 경험에 의한 관습적 인식은 ‘천사’와 ‘악마’를 대립되는 긴장 구도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물방울이 떠 있는 상황을 순간의 미학으로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행의 “걸려 있는 다채로운 물방울들”은 확장된 의미를 함축한다. ‘다채로운’은 ‘다양성’을 의미하며, ‘다름’에 대한 가족적 유사성의 표현이다.



[그림 10]

수평적 공간을 통한 개념화는 수평적 척도 도식에 근거한 공간적 지향성이 거리와 관련하여 주어진다. 수평적 공간을 통한 개념화는 ‘가깝다-멀다’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도식에 기초하여 상호 관련을 이해하는 방식이다.<sup>30)</sup>

[그림 10]에서는 (4)의 내용을 수평적 척도 도식과 그릇 도식을 합쳐서 나타낸다. ‘물방울’이 천사와 악마 사이에 걸려 있는 모습은 척도 도식에 의해 설명되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릇 안에 있는 형상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공간 은유의 입체적 확장은 의미의 중층적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마지막 단락에 함축하는 의미를 강화해서 인지하게 한다.

30) 임혜원, 앞의 책, 206~20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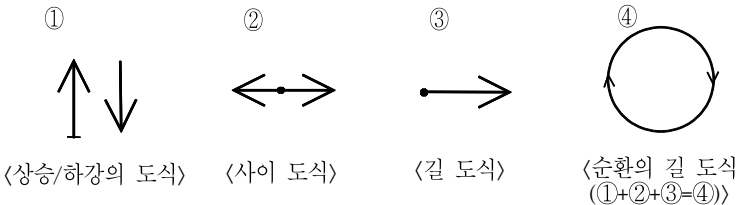
이와 같은 텍스트의 표층적 의미는 인지 대상 물방울이 무지개나라에 떠있다는 것이다. 한편, 심층적 의미는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성을 추측하게 한다. 인지 주체는 인지 대상이 언젠가는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추한다. 이렇듯 인지 대상 ‘물방울들’은 하강하거나 공중에서 산포되어 형태가 소멸한다. 그러나 형태는 소멸하지만 그 원소 성분은 결국에는 상승하게 된다.

무기물 ‘물’은 과학적인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면, ‘물’의 원소가 공중으로 상승해서 다시 형태를 달리하는 물방울이 되어 하강한다. ‘물방울들’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 순환한다.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의 인지구조는 ‘상승과 하강/수직적 척도’ 도식과 ‘사이/수평적 척도’ 도식의 구성이 ‘그릇’ 도식으로 포괄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도식들의 체계적인 합은 자체적으로 운동성을 발원할 것이라는 의미확장을 추론한다.<sup>31)</sup> 현재 표층 의미는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이다. 텍스트는 순간미학의 정태적인 인지구조를 보인다.

### 2. 3. 우주화되는 순환적 인지지향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인지지향<sup>2)</sup>을 밝혀

31) 다음 도식의 예시는 원형적 도식들의 합이 ‘순환의 길 도식’으로 운동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32) 지향성은 언제나, 인간이 행하는 이해의 문제이다. 지향성이란 어떠한 종류의 심적인 상태 혹은 표상(개념·이미지·단어·문장)이 경험의 어느 차원 내지 국면에 관여하는 능력 혹은 그것에 향하는 능력이다. 이런 뜻에서, 의미는 환원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향적이다(Mark Johnson, 앞의 책, 286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텍스트를 인지시학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지구조의 도식들을 합해서 인지지향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의 은유는 일차 은유를 거쳐 확대된 은유로 나아간다. 여기서는 공간은유<sup>33)</sup>에 대한 종합화된 도식을 그려보고 의미확장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의미는 언제나 지향성의 한 형식으로서 관계성의 문제이다. 어떤 사건은 경험에서 앞선 사건의 구조 혹은 가능한 미래의 구조를, 스스로를 넘어서서 지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된다. 이 사건은 과거에서 미래로 퍼지는 배경에 떠오르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sup>34)</sup>

이미지 도식은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미지 도식은 수많은 추상적 영역을 구조화할 수 있게 된다. 의미는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에 의해 '확장(extension)'이 일어난다.<sup>35)</sup> 신체화에 바탕을 둔 반복되는 경험은 이미지 도식을 통하여 물리적 개념을 발생시키고, 은유적 확장을 통하여 추상적 개념을 발생시킨다.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에 나타난 '무지개나라'는 '인간세계'를 은유하고, '물방울'은 '인간'을 은유한다. 물방울은 자신을 산포되게 할 햇빛에 취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색채를 빛나게 입고 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추구하며 도취한 듯 살아가는 것을 환유하고 있다.

이렇듯 도취로 예민해진 감각은 빛깔을 의미심장한 울림으로 진동케 하면서 동심원을 그리는 파문처럼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sup>36)</sup> 도취는 정현종의 철학적 사유의 한 면모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죽음과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존재의 지평을 넓히는 하나의 과정이며, 실존의 한 순간인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그것의 생동하는 활동에 있어서 우리들을 과거와 현실에서 동시에 떼어내며, 그것은 미래로 열려 있는 것

---

33) <은유는 공간이며/공간은 은유이다>는 공간이 모든 의미 조직의 모태라는 것을 말한다(미셸 콜로, 정선아 옮김,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287면).

34) Mark Johnson, 앞의 책, 287면.

35) 임지룡, 앞의 책, 80면.

36) 서진영, 앞의 책, 82면.

이다.<sup>37)</sup>

그 미래로 열린 상상력은 공간은유의 의미확장 영역에 닿는다.

이와 같이 공간 개념의 은유적 투사에 의하면, ‘무지개나라’는 ‘우주의 공간’<sup>38)</sup>을 의미한다. ‘물방울’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물방울’은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물질을 암시하며, 우주적 잠재력을 상징한다.<sup>39)</sup> 이러한 물방울의 근원적이며 잠재적인 의미는 텍스트의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 구조를 역동적으로 인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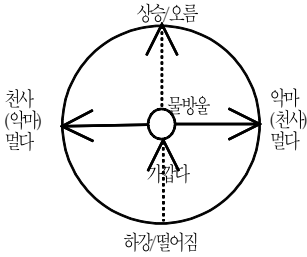
여기서는 인지시학의 방법을 통해 텍스트에 투사되는 미래 구조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 의미는 텍스트를 조명하며, 나아가 시인의 문학성을 추출 한다는 데에 있다. 텍스트의 인지지향은 우주화되는 순환적 이미지 도식으로 나타난다. 이미지 도식은 우주가 하나의 그릇으로 무지개나라는 우주에 담겨 있고, 물방울들은 무지개나라에 담겨 있는 형상이다. 결국 물방울은 우주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 이러한 인지도식은 순환을 계속하게 되며, 자연관적 순환 논리로 의미가 확장된다. 공간은유는 시간과 공간을 조합해서 종합적인 도식을 도출하며 의미확장이 된다. 그와 같은 과정을 도식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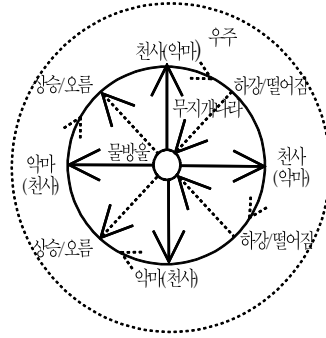
37)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106면.

38) 시인은 우주에 노닐 필요가 있다. 느낌의 우주라고 해도 좋고 감정의 공간이라고 해도 좋으며 섬세하고도 광활한 앞이라고 해도 좋다(정현중, 앞의 책, 376면).

39) 이승훈, 앞의 책, 198~199면.



<‘물방울’의 이미지 도식(수직/수평적 척도 도식+그릇 도식=공간화되는 이미지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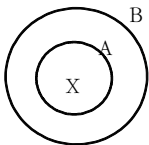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의 이미지 도식(척도 도식+그릇 도식+길 도식=우주화되는 순환적 이미지 도식)>

[그림 11]

공간 관계는 이미지 도식적 구조에 의해 내재된 공간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릇 도식은 내부, 경계 그리고 외부의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전체 없이 부분들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게슈탈트 구조이다. 경계 및 외부가 없는 내부는 없으며, 경계 및 내부가 없는 외부는 없다.<sup>40)</sup>

[그림 11]은 앞에서 도출해 본 텍스트의 인지구조를 나타내는 세부적인

40) George Lakoff & Mark Johnson,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역, 『몸의 철학』, 박이정 2011, 67면



X는 A 안에 있다.  
A는 B 안에 있다.  
따라서 X는 B 안에 있다.

<그릇 도식 논리>

도식들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그린 이미지 도식이다. 도식을 이루는 요소는 수직/수평적 척도 도식과 그릇 도식 그리고 길도식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원형 도식의 원리와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종합해서 공간화되는 이미지 도식으로 도출된다. 공간화되는 이미지 도식은 수직/수평적 척도 도식과 그릇 도식의 합으로 생성되며 우주화되는 순환적 길의 이미지 도식으로 확장된다.

이와 같이 순간미학의 정태적인 인지구조는 우주화되는 순환적 인지 지향을 향한다. 인지구조의 정태적인 순간은 인지 지향의 동태적인 영원성으로 확장된다.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은 우주화되는 순환적인 이미지 도식으로 공간은유의 의미확장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이미지 도식의 실선은 텍스트의 표층적 의미의 영역이고, 점선은 심층적 의미가 확장된 영역이다.

이 도식은 〈죽음은 출발이다〉<sup>41)</sup> 개념은유를 기반으로 한다. 출발이라는 것은 닫힌 공간의 경계 부분에서 시작해서 어느 경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는 복합적인 이미지 도식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sup>42)</sup> 그 은유 개념의 기저에는 〈생명은 체내의 액체이다〉와 〈죽음은 액체의 상실이다〉 개념은유가 사용된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유는 확대 은유로 나아가며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이룬다.

체험적 게스탈트(Gestalt)는 구조화된 다차원적 전체이다. 게스탈트의 관점에서 경험을 범주화할 때 우리는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정합성(整合性, coherence)을 보게 된다.<sup>43)</sup> 텍스트를 게스탈트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빛이다〉<sup>44)</sup>와 〈시간은 움직임이다〉<sup>45)</sup> 은유 개념이 기저 한다. 현재의 시간/

41) 동양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어휘 중의 하나로 ‘終始’를 들 수 있다.(양병호, 앞의 책, 261면.)

42) George Lakoff & Mark Turner, 앞의 책, 133~134면.

43) George Lakoff & Mark Johnson, 앞의 책, 160~162면.

44) George Lakoff & Mark Turner, 앞의 책, 85면.

45) 위의 책, 67~69면.

태양은 언제나 예측되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을 우주의 한 요소로 환유하면, 한 생명의 죽음은 빛의 소멸이고,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은 빛의 생성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적 존재의 하강/상승과 소멸/생성으로 환유되며, 자아와 타자의 경계무화 경지로 정합성을 의미한다.

[그림 11]에서 인지지향의 이미지 도식은 인지 패턴을 이룬다. 이러한 이미지 도식은 자연적/우주적 순환을 지향한다. <무지개나라는 우주이다> 은유가 창발한다. '우주' 근원영역은 '무지개나라' 목표영역을 사상하면서 대자연의 무경계라는 확장된 공간/혼성 공간을 형성한다. 텍스트에 나타난 공간은유의 확장된 의미는 우주화되는 순환적 인지지향이다. 이렇듯 이 텍스트의 인지 체계는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화를 보여준다.

### 3.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인지시학적 방법으로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을 분석해 보았다. 언어적 인지기호를 살펴보고, 개념은유와 이미지 도식을 사용해서 인지구조를 파악해 보며, 나아가 공간은유의 의미확장을 밝혀 보았다.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첫째, 언어적 인지기호는 여러 층위에서 이원적 양상을 보인다. 인지기호는 이원화되어 의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상력의 진폭이 크다. 따라서 텍스트는 단순한 어휘와 통사 구조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울림이 크다. 먼저 중심어의 이원적 양상은 '물/햇빛'의 역설적 관계, '천사/악마'와 '땅/공중'의 대립 구도, '상승/하강' 이미지 시어들로 범주화된다. 다음으로 통사적 특징은 주어의 수미상응과 부사, 서술어미 등이 이원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이원적 양상은 하강과 상승을 이끄는 인지구조의 운동성을 부여해 상상력을 역동적으로 인지하게 한다.

둘째, 인지구조는 순간미학의 정태적인 양상을 보인다. 정현종은 맑은

인식으로 순간미학을 그려낸다. 인지구조는 여러 개념적 은유로 설명되며 다양한 이미지도식으로 시각화된다. 사용된 이미지 도식은 그릇 도식, 수직/수평적 척도 도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식은 공간은유의 확장적 투사를 통해 의미확장으로 이어진다. 이상/현실적 요소에 취한 물방울들은 무지개 나라 그릇에 담겨 있는 형상이다.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은 인간 세상의 ‘우리’를 은유한다. ‘물방울/인간’은 ‘소멸/죽음’을 잠시 잊고 ‘천사와 악마 사이/대립적 세계 속’에 ‘떠/걸려’ 있다. 텍스트는 물방울들이 공중에 걸려 있는 순간에 대한 정태적 인지구조이다.

셋째, 인지지향은 우주화되는 순환적 양상으로 확대된다. 인지지향을 나타내는 도식은 인지구조에서 도출된 도식들이 합해져 종합화된 양상이다. 종합화된 이미지 도식은 공간은유의 의미확장을 보여준다. 확장된 의미는 물방울은 무지개 안에 있고, 무지개는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지향의 도식은 척도 도식과 그릇 도식에서 나아가 원형의 길 도식의 동태성을 확보한다. 동태적 이미지는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호의 역동성과 이미지 도식에서 확인된 공간화되는 하강과 상승의 운동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종합화된 이미지 도식은 공간은유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적 인지기호와 인지구조의 교용에서 비롯되며 의미확장이 이루어진다.

이 논문의 의의는 인지시학의 개념은유와 이미지 도식을 사용해 인지구조를 살핀 후, 나아가 공간은유의 의미확장의 양상을 밝힌 점이다. 인지시학은 의미생성부여의 창조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인지시학적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인지 체계를 밝히는 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인지시학은 정현중 작품에 나타나는 철학적 사유의 특성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다. 인지시학적 방법을 통한 정현중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 과제로 남긴다.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정현중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을 인지시학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그의 문학성의 한 면모를 밝히는데 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인지시학의 개념은유, 이미지 도식 등을 적용하여 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공간은유의 의미확장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언어적 인지기호와 인지구조 그리고 인지지향이 독특하게 드러난다.

언어적 인지기호는 이원적 양상을 보인다. 텍스트 구성 요소인 중심어는 다양한 카테고리도 이원화된다. 통사적 면에서는 의미 구조를 이끄는 이원적 양상을 보인다. 어휘 분포도는 이원화된 언어기호를 나타낸다. 이원화된 언어기호는 역동적인 상상력으로 의미화된다.

텍스트는 순간미학의 정태적 인지구조이다. 인지구조는 의미 단락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의미 단락은 기본 개념은유와 이미지 도식을 사용해서 인지구조를 살펴본다. 도식의 양상은 의미 단락 (1)에서는 그릇 도식으로, (2)에서는 수직적 척도 도식으로 그려진다. (3)은 의미연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4)는 수평적 척도 도식과 그릇 도식으로 그려진다. 중심 내용은 물방울이 이상적 혹은 현실적 요소에 취해 무지개나라에 걸려 있는 형상이다.

우주화되는 순환적 인지지향은 인지구조의 양상에서 나아가 공간은 유적 투사에 의해 의미확장이 된다. 인지지향의 이미지 도식은 인지구조에서 도출된 도식들이 합해진 종합화된 원형의 길 도식으로 확대된다. 길 도식은 언어적 인지기호와 인지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동태적 특성을 부여받는다. 공간은유의 의미확장은 물방울의 하강과 상승의 논리를 확대 투사해 우주화되는 순환의 논리를 이끌어낸다.

주제어: 정현중, 「무지개나라의 물방울」, 인지시학, 공간은유, 의미확장.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정현중, 『정현중 시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99.

### 2. 논문

구성호, 「정현중 시에 나타난 관능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8.

권계영, 「정현중 시의 시간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김 현, 「술 취한 거지의 시학」,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서진영, 「정현중 초기시의 지평구조와 의미양상」,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 문학연구』, 제16집, 2004, 12.

송기환, 「정현중 초기시의 환유적 성격과 그 의미 구조 연구」, 한국현대 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집, 2004, 12.

이경수, 「바람의 현상학」, 『작가세계』, 제8권, 제2호(통권 제6호), 1990, 8.

이병훈, 「시적 진실과 시의 관념적 언어」,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통권 25호, 1992, 3.

### 3. 단행본

김태욱, 『담화 텍스트 언어시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_\_\_\_\_, 『시여 연애를 하자』, 시문학사, 2009.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9.

임혜원,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2004.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Mark Johnson,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 미셸 콜로,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287면.
- 미카엘 리파테르, 유재천 역, 『시의 기호학』, 민음사, 1989.
- George Lakoff & Mark Johnson,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 은유』, 박이정, 2006.
- \_\_\_\_\_,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역, 『몸의 철학』, 박이정, 2011.
- George Lakoff & Mark Turner, 이기우·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Abstract〉

**Cognitive poetic analysis on 「Waterdrop of Rainbow  
World」 of Jeong Hyun Jong**  
-In terms of meaning expansion of space metaphor

So, Pilgyu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Jeong Hyun Jong's 'Waterdrop of Rainbow World' by cognitive poetic method. In this study, poetic conceptual metaphor and image schema are adopted as analytical methods to figure out cognitive meanings and space metaphorical meaning expansion. While analyzed, linguistic cognitive sign and cognitive structure and cognitive aim are focused.

Linguistic cognitive sign has binary aspects. Main words are varied into diverse categories. In terms of syntax, meaning structures are developed by binary aspects.

Vocabulary distribution map shows binary language signs as well, which has meanings with dynamic imaginations.

The text has static cognitive structure of momentary aesthetics. Meaning parts are divided into four meaning parts to analyze this cognitive structure. Basic conceptual metaphor and image schema are used for this purpose. Schema aspects are as following: meaning part (1) is described as a container schema; part (2) as a vertical scale schema; part (3) as meaning chain model and part (4) as a horizontal container schema and container schema. The focal image is that waterdrop hangs on the rainbow country intoxicated with ideal or real factor.

Cosmic circulatory cognitive orientation has meaning expansion through cognitive aspects and space metaphorical projection. Cognitive oriented image schema is expanded into comprehensive circular road schema, which is added up by varied schemas derived from cognitive schema. Road schema is featured as dynamic by linguistic cognitive sign and cognitive structure dynamic. The meaning expansion of space metaphor induces circulatory logic by expanding and projecting the logic of ascending and descending of waterdrop

**【Key words】** : Jeong Hyun Jong, 'Waterdrop of Rainbow World',  
cognitive poetics, space metaphor, meaning  
expansion

소필균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sunshin2887@naver.com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